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불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뼛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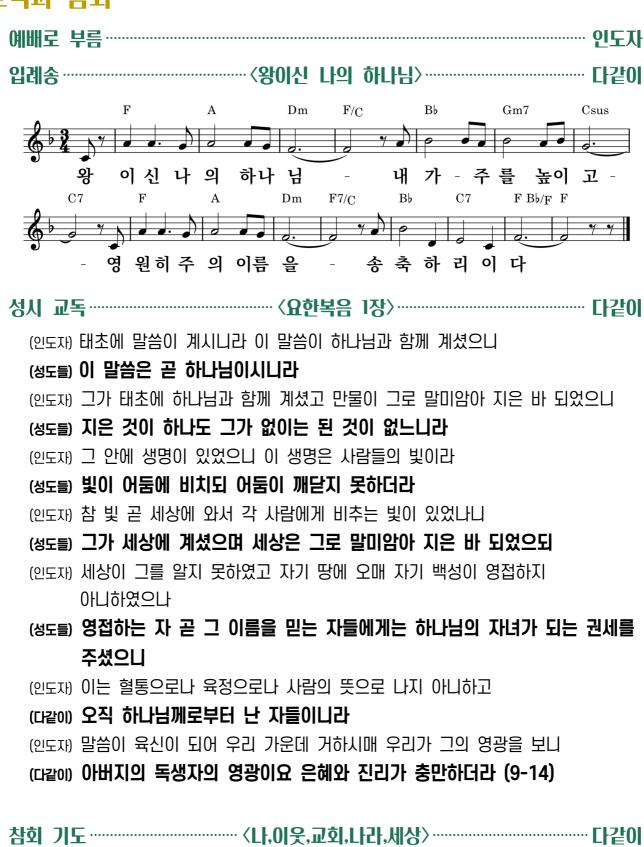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사죄의 확신 …………………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감사의 고백......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듣기와 묵상………다같이

말씀 권면 …………임희국 목사

묵상 기도………다 다같이

응답의 찬양……..다같이



2번 함께 부릅니다

응답과 축복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노트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하세요





창세기 2:1-3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1-3



-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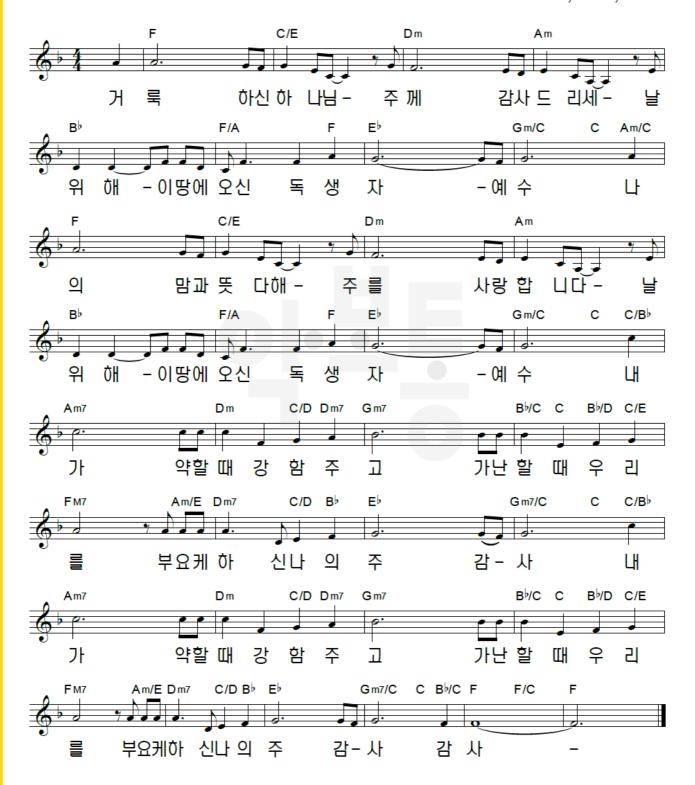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감사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중보기도

하나님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배하다 사는 것이 유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약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러드도이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하이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 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 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 커피토크 - 임희국 목사

오늘 주일예배 설교와 점심식사 후 오후 커피토크로 섬겨주시는 임희국 목사 (장신대 명예교수, 스위스 바젤대학 신학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새가족 환영회 - 10월15일

길목교회에서 처음하는 새가족 환영회! 10월 15일에 길목교회 식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기대해주세요 ^^

감사찬양곡 변경

오늘부터 감사찬양곡이 변경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보 안쪽에 악보를 실어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미리 익숙하게 불러보세요.

오늘 점심식사

오늘 점심식사는 <라면>입니다. 팀별로 나뉘어 맛있는 라면요리에 도전해주세요 ^^

<10월4주 점심식사 섬김 - 이춘원,정지혜 집사>

담임목사 성지순례 사역중

담임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성지순례 인솔 사역중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